

“자신의 삶  
주인으로 사세요  
남의 ×  
치우지 말고”

###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정혜진 작가 창작동화집 ‘스마일 캐릭터’ 펴냈다

‘잘 될 거야’ 등 9편 수록

광주일보 신춘문에(1991년) 출신 정혜진 동화작가가 창작집 ‘스마일 캐릭터’(아침마중)를 펴냈다.

작품집은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품고 곳곳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표제작 ‘스마일 캐릭터’를 비롯해 ‘따라서 할아버지’, ‘은토끼를 찾아라’, ‘황금박쥐 특공대’, ‘바구미 할매’ 등 모두 9편의 동화는 어려움속에서도 곳곳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일상을 다룬다.

표제작 ‘스마일 캐릭터’는 근력이 무력해지는 희귀병을 앓는 5학년 어린이 한그루의 이야기다. 난치병을 앓는 가운데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한그루는 가족에게는 물론, 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도 긍정의 힘을 준다. 그 힘을 통해 많은 이들이 내일의 희망을 발견한다는 내용이다.

‘은토끼를 찾아라’의 민지, ‘따라서 할아버지’의 낯선 할아버지, ‘바구미 할매’에 등장하는 할머니 또한 비록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들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따뜻한 캐릭터들이다. 작품집에

는 다문화 가족, 위안부 문제와 같은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 작가의 남다른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동화작가 김병규 한국아동문학인협회장은 “정혜진 작가의 문학 향기는 사람 냄새처럼 신선하다”며 “이들 작품이 우리 고유의 서정과 자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한다.

한편 정 작가는 전남여류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문학상, 대한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별꽃 엄마’, ‘피꼬리의 금메달’, ‘날아라 우주선’ 등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컬처 & 피플

철학자

최진석



“스스로 문제를 내고 답을 쓰시오”라는 기말고사 문제가 출제됐다. 학생들은 좋아서 ‘깎~깎’ 놀란다.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아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문제로 내고 답을 쓰면 될 일 아닌가. 그러나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논술하라는 것은 문제가 아님”이라는 시험의 단서 조항에 걸리고 만다.

급기야 시험 시작 5분쯤 되면 대부분 학생이 울상이 된다. 강강대대 백지 답안을 낸 학생들은 ‘F학점’을 금부도사가 건네준 사약처럼 받게 된다. 그 불운한 학생은 매 학기당 10%에 달한다. 그럼에도, ‘괴짜’ 교수에게 학점을 따내려는 무모한 학생들은 줄지 않는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55) 교수. 신안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교 졸업한 전라도 토박이다. 최 교수는 ‘EBS 인문학특강’에서 명쾌한 강의로 유명세를 탔지만, 그는 TV출연 전부터 대기업 CEO, 자치단체에 널리 알려진 인문학 인강자이다. 한 차례 서기도 어려운 삼성전자 임원들을 상대로 한 강단에 두 번씩이나 서는 바람에 뉴스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 그는 “말년이 떨어져서 외부강의를 줄여나갈 생각”이라며 웃었다.

그에게 “왜 학생들에게 난해한 시험문제를 내는지 물었다. “인문학적 삶의 출발이 질문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학생은 지식을 습득하려고만 했을 뿐 어떤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어려워 합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웃음)

그는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지론의 소유자답게 종종 술집을 찾는다. 그러나 불면할 때가 자주 있다. ‘아무거나’라는 안주가 들어있는 메뉴판을 볼 때마다.

“아무거나”라는 안주를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게 귀찮아서 ‘아무거나’를 하다 보니 메뉴에도 등장했겠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 신인 출신 광주대동고 졸업 전라도 토박이

‘EBS 인문학특강’ 유명세

### 인문학적인 삶이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

예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식욕도 바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는 강의에서 ‘센’ 발언을 하고 점잖지 않은 단어도 불쑥 내뱉곤 한다. 변죽 울리지 않고 정공법으로 치고 들어간다. 어렵지 않아 청중들은 의외로 좋아한다. 그는 강연에서 “남의 똥 치우지 말고, 내 똥을 싸세요.” “책 속에는 길이 없다”고 말한다.

“제가 입버릇처럼 ‘책 속에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을 읽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책에 나온 내용은 저자의 길이, 읽는 사람의 길은 아닙니다. 저자의 길을 참고할 뿐 자신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똥 얘기도 남의 것을 추종하거나 모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내 것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인문학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제목의 책(소나무)을 냈다. 제목에는 그의 오랜 통찰과 성찰이 응축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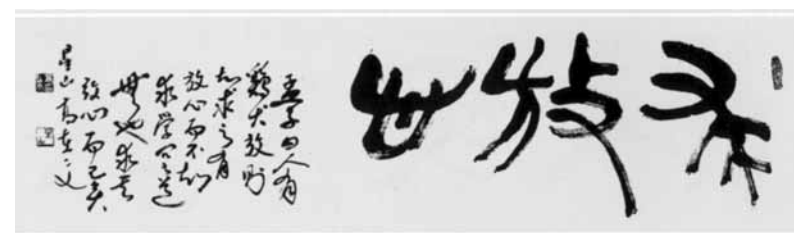
있다. ‘인문학을 인간이 그리는 무늬’로 해석한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인문학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연구하는 것이고, 중국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무늬를 그리며 사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옳고 그름, 바람직함, 호불호 등은 사실 정치적 판단입니다. 이는 내 것이 아닌 이념이나 신념, 가치관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훑시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념이나 이념,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비로소 인문학적 통찰도, 창의성도 생깁니다.”

그의 학창시절은 자신의 강연처럼 명쾌하고 똑 부러지지 않았다. 중·고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고 2 때 그는 헤어나가 어려운 고민에 빠져든다. 죽음과 삶, 덧없음 등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를 갖게된 거다. 고민은 방향으로 이어져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다. 재수해서 ‘덕걸이’로 어렵사리 서강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 당시 법학이나 정치외교학 전공하기를 바랐던 그의 부친은 교직 생활 41년을 통틀어 단 하루 결근했다. 자식이 철학과를 가겠다고 결정하자 충격을 받았던 날이다.

그의 긴 방황은 사실 자신의 원하는 길을 찾은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는 자녀 교육에서도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 “어느 날 대학 잘 다니던 아들이 자퇴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죠. 스스로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따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빠, 대학 자퇴하려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조언을 구했다면 호되게 나무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충고하는 일과 충고를 듣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재문 작 ‘구방심’

### ‘필우회 전’ 13~19일 메트로갤러리

필우회(회장 고재문)가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 금남로4가 역에 있는 메트로갤러리에서 ‘제37회 필우회 전’을 연다.

지난 1979년 창립한 필우회는 삼락 서예원 송파 이규형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서예단체다. 회원은 100여명에 달하며 전남도전, 광주시전, 대한민국의사협회 추진, 초대작가 30여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는 송파 이규형 선생을 비롯해 성산 고재문, 유현 김일환, 경재 조옥희 회원 등 모두 67명이 참여해 1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회원들은 고전을 먹의 오채(五彩)와 다양한 운필(運筆)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한다. 작품과 함께 한문을 번역한 해설문을 함께 전시해 작품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 광주박물관 ‘수험생, 박물관과 소통하다’ 참가자 모집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험생, 박물관과 소통하다’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는 13일까지 모집한다.

‘공재 윤두서-자화상의 비밀’ ‘조선의 풍속화가-단원 김홍도’ ‘19세기 배일에 싸인 조선의 풍속화가 김준근’ ‘외규장각 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등 영상을 상영하고, ‘풍속화 목판찍기’ ‘나전철기 목적이 만들기’ ‘오침안정법 옛 책 만들기’ ‘굽은목 팔찌 만들기’ ‘천짜기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주제와 일자를 선택하여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인원은 60~300명 사이다. 문의 062-570-7068.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b>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b> 27-45세 <b>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b> 28-47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b>삼성, 현대, LG 직원</b> 28-47세 <b>은행원, 연구원</b> 29-49세 <b>대(중,소)기업 직원</b> 27-48세 <b>사업가, 자영업</b>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b>국영기업체 직원</b>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전문직 희망 여성</b> 25-38세 <b>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b> 26-41세 <b>간호사, 유치원 교사</b> 27-42세 <b>의사, 약사, 교사</b> 25-39세 <b>변호사, 회계사, 변리사</b>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정부투자기관 직원</b> 25-38세 <b>간호사, 은행원</b> 26-47세 <b>학원(음악)원장, 강사</b> 27-42세 <b>스튜어디스, 영양사</b> 26-42세 <b>미스코리아, 미스전복</b> 27-36세	<b>의사, 변호사</b> 32-65세 <b>국영기업체 기관장</b> 52-66세 <b>공무원, 교사, 교수</b> 35-65세 <b>대기업 간부</b> 36-59세 <b>회사원, 자영업</b> 33-67세 <b>'무출산 여성' 희망</b> 31-58세 <b>VIP 희망 여성</b> 29-53세 <b>학원(음악)원장, 강사</b> 27-63세 <b>공무원, 교사</b> 32-58세 <b>간호사, 회사원</b> 29-48세 <b>자영업, 가사</b> 35-64세 <b>'무자녀 남성' 희망</b>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허니몬트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종

원적외선 히터의 11종

대형 제습기의 2종

이동식 에어컨의 11종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종

**무등산업** ☎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 010-3601-7701 선착순 모집